

# 도자기공예와 문학의 접목 시도

## 죽왕면주민자치센터, 도자기공예 수강생 전시회 개최 ... 새로운 문화콘텐츠 경험



지난 25일 죽왕면주민자치센터 도자기공예 수강생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자기 공예를 관람하고 있다.

죽왕면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김하인 아트홀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자기공예 수강생 전시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교육프로그램 도자기공예팀이 주최하고 죽왕면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

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민자치교육프로그램의 도자기공예강좌를 통해 기량을 쌓은 수강생 25명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도자기공예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국화꽃향기'의 작가 김하인의 작업실을 공개, 작가의 작품세계도 엿볼

수 있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고성군문화회가 수성문화제 때 개최한 시화전 작품들도 함께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시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최광호 기자

# 어르신·청소년 세대통합 프로그램 진행

### 고성청소년수련관, 어르신은 유대감을 청소년은 자원봉사의 즐거움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6일 고성소망노인요양원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어울리며 세대를 거슬러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세대통합을 이룰 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니가족악자 만들기, 고성청소년중창단 공연, 고성방과후아카데미 민요공연, 속초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눈'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성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세대간의 유대감을,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의 즐거움을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6일 고성소망노인요양원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가라홀시단(加羅忽詩壇)

### 오비토주(鳥飛兔走)

최형운(죽왕면 삼포리)

어릴 적 고향마을에  
열 두 명의 동갑내기들은  
신명나게 달음박질하며  
들과 산을 무대 삼아  
강으로  
바다로  
계절따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웠지요.

어릴 적 고향 동무들은  
소박한 바람과 푸른 꿈을 찾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출향생활 삼십여 성상속에  
아빠 엄마 시대는  
어느덧 뒤안길로 물러나고  
이제는 사랑방 주인 되어  
오늘도 손주 녀석 재롱에  
행복한 웃음만 짓는다.

어릴 적 고향 동무들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향마을 어귀 정자를 찾았지만  
밝게 웃음 꽃 피던 그 동안(童顔)은  
어디로 사라지고  
언제 찾아왔는지  
곱다랗지도 않은 주름이  
이마 위에 내전(川)자를 그려 놓았네.

※오비토주(鳥飛兔走) : 세월의 빠름을 이르는 말

## 고성중고 바이애슬론 학생들이 연탄배달



고성중고 바이애슬론부 학생들은 지난 19일 성금 50만원을 모아 간성을 교동, 상리, 신안리, 동호리(2가구) 총 5가구에 연탄 각 200장씩 1천장을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